

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행정
진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도군은 오늘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진도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 정책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확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극행정 우수협업팀과 우수공무원 선발 2회, 실행계획 수립 1회, 적극행정 위원들의 의견 수렴 2회 등 총 5회의 진도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진도군은 영광군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소극행정의 유발 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폭 넓은 시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속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 행정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군수로서, 직원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도군은 군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철학을 실현하겠습니다.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진도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김선주 진도부군수

"칭찬합시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칭찬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칭찬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인간관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는 물론 그 넓이를 한없이 넓혀주는 역할도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칭찬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

생각해 보라. 누구든지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지를, 칭찬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모으려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도 않는다. 즉,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광폭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칭찬은 그 효과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그 여진은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예찬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자기 자신이 손해 보는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일까. 정정당당하게 상대방과 겨

루기보다는 사술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일까. 승승계임보다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험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 세상이다. 험담이 인간 세상의 독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모로코 속담에도 험담은 최소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험담을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험담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처럼 험담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는 곧 우리 주변을 청량감보다는 혼탁함이 감도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짓거리들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시민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을 비롯한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심하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공존보다는 유아독존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직설적으로는 물론 칭찬을 가장한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짓 칭찬, 사탕발림 칭찬, 실속 없는 칭찬, 의미 없는 칭찬 그리고 금방 뒤돌아서면서 욕을 해대는 칭찬도 마다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는 온갖 아부를 다해가면서 칭찬을 하다가

도 그 힘이 사라지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모리배 및 장사치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프로젝트를 고안해 낸 사람도 어둠의 뒷골목으로 몰아가 버리는 사람들. 성황리에 치러지는 남의 잔치를 애써 폄하해야만 가슴이 편안해지는 족속들.

극한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아류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인간됨을 써대는 일부 몰지각한 몰신주의자들. 이런 쓰레기 같은 부류들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기에 칭찬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애제다. 통제다. 오몰투성이 사회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모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칭찬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 주도록 하자.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생시부터 인간관계를 폭넓게 해야 하는데 그 한 가운데에 바로 칭찬이 따를 것을 듣고 있다. 비판마저도 칭찬처럼 하라고 했다. 칭찬은 그대로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되새기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재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압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 특히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소화기 사용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고,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담양군 수북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주민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되

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이 쉽게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주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화재가 더 크게 번졌을 수 있었다"며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때 사용되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든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화기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조현성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음력 12월 3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escriptions and icons.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the slogan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Creating the life line of Korea!).